

산학협력 체계 실현으로 학회 발전

이명훈 신임회장 선임



이명훈

(사)한국포장학회 회장

(사)한국포장학회는 지난 해 11월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명훈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소장을 학회장으로 추대,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포장학회 창립 이래, 전임 회장들이 모두, 학계출신의 교수들이었던 것을 볼 때 금번 이명훈 소장이 학회장에 선임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이명훈 신임회장은 “학회는 학술적인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학계에 계신 분이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학회장을 맡게 된 것은 포장학회와 산업계를 연결시키는 산학협력체계를 다지라는 회원들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만큼 주어진 임기 동안 이런 뜻을 충실히 이행하여 포장학회가 국내 포장산업 발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대신했다.

1979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포장개발부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래 오직 포장분야 한 우물만 파오고 있는 이명훈 회장은 1994년 포장학회 창립에 참여, 8년 동안 총무이사로서 학회 기틀을 다지는데 힘써 왔다. 그가 학회내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야는 바로, 국내 대학내 포장학과의 설립.

이 회장은 “경북과학대학을 비롯해, 신성대학, 연세대, 용인 송담대학 등의 학과 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약 10여개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현재 포장관련학과는 2개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학계 뿐만 아니라 이명훈 회장은 1995년 (사)한국포장기술사회 창립에도 참여, 2006년도에는 포장기술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포장산업계 현장에도 깊이 관여했다.

현재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1994년 6월에 연구소를 설립, 지금까지 약 10여개의 대기업 그룹과 100여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해오고 있으며 정부의 포장분야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용역 등을 수임하여 수많은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다.

특히 2007년도부터는 친환경포장에 관한 국제 표준화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한 부분에 대한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초부터 전북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패키징센터 설립 기획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등 포장업계에 입문한 32년여의 시간동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학협력체계를 갈구하는 (사)한국포장학회 회원들의 뜻에 따라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이명훈 회장은 “포장학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강조한다.

“포장산업의 발전은 사명감을 가진 전문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현재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포장학과는 산업계와 별로 유대관계가 깊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우선 포장전공 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 산업계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거쳐 실무능력을 쌓고, 업계에서도 제대로 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과 업계 중견인사들이 1:1로 인연을 맺는 멘토제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명훈 회장은 또한, “포장학회가 학회로서 위상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학술진흥재단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부분은 차기 학회를 이끌어 가실 분에게 소임을 다하도록 하고, 저는 산업계에서도 많은 연구논문을 학회에 투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학회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포장분야의 이슈 해결을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등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내 포장기술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실천가능 대책이 무엇인지를 포장기술사회나 포장기술인협의회 등 포장기술 단체들과 함께 심도있게 의논해 볼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훈 회장은 포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홍보는 대학에 포장학과를 설


립하는 것이라고 피력하면서 2012년에 수도권과 지방에 2개의 포장학과 개설을 목표로 발 벗고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몇몇 대학에서 포장학과 설립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 올해 구체적인 진전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입학정원을 늘리기가 어려운 수도권 4년제 대학에 포장학과가 설립되려면 포장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학생들 연수, 졸업 후 취업 협조 그리고 잉여 시험기기 등의 기증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전 세계는 친환경포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포장산업의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포장은 더 이상 지구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아니고 자원순환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부가가치가 큰 자원순환재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 패키징, 나노 패키징, 유니버설 디자인, 신유통 및 신물류 등 포장과 관련된 차세대 기술의 개발 경쟁이 각 국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명훈 회장은 “현재 국내 포장산업계는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변화하는 포장산업의 지형에 잘 대처하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대에 내부에만 안주하지 말고 바깥세계로 안테나를 세워 큰 흐름을 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는 이명훈 회장. 포장학회는 업계의 협력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는 이 회장의 젊은 열정과 노력으로 (사)한국포장학회와 포장업계가 한층 도약하기를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